

제 **17** 호 2016년 하반기  
(2016. 7. 1.~ 2016. 12. 31.)

# 의정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구민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6 의원현황 및 정수
- 07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8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주요의정활동  
제162회 임시회  
제163회 임시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22 현장속으로
- 25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 34 2016년 하반기 포토 의정
- 54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표지설명 : 문회의장

발행일 2016년 하반기, 제17호  
발행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052-241-8973  
홈페이지 <http://council.bukgu.ulsan.kr>

## 발간사



존경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정복금입니다.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다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이루고 싶은 소망과 계획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장엄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기에, 낡은 것은 사라지고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인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요?  
저를 포함한 북구의회 7명의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대의기관으로 더욱 매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선해나가며 이를 통해 우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화합과 통합의 주민자치를 통한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전문성 제고,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만 북구 주민 모두가 풍요와 행복, 그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 서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올해는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북구의회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북구가 울산의 중심도시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살펴보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 속에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는 희망찬 북구를 그려봅니다.

앞으로도 북구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복금**

# 의원현황 및 정수

## ▣ 제6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 의장

성명 정복금  
연락처 010-3446-2002  
선거구 비례대표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성명 강진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성명 윤치용  
연락처 010-2299-7321  
선거구 농소 2·3동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 의원

성명 안승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북구로 가꾸겠습니다.”



### 의원

성명 이상욱  
연락처 010-5535-236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여가와 문화가 풍성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 의원

성명 이수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 2·3동

“주민이 행복한 사람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 의원

성명 백현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건강하고 활기찬 북구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 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 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의회 조직





# 2016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회기운영 현황 (2016. 7. 1. ~ 12. 31.)

구 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16년 하반기	3	47	2	15	1	32

##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62회 (2016.8.25.~9.5.)	12	37	1		30				2	1	3
제163회 (2016.10.11.~10.13.)	3	21			12	1			1	3	4
제164회 (2016.11.21.~12.22.)	32	10	2		29		2	1	1	5	6
<b>합 계</b>	<b>47</b>	<b>68</b>	<b>3</b>	<b>0</b>	<b>71</b>	<b>1</b>	<b>2</b>	<b>1</b>	<b>4</b>	<b>9</b>	<b>13</b>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2회 | 임시회 2016. 8. 25. ~ 9. 5. (12일간)

제162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8월 25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제162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총 129억 규모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0건을 심의했다. 한편 강진희 부의장은 '북구 체육회 운영'에 관해, 이수선 의원은 '북구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라는 주제로 구정 질문하였다.

정복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와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진행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및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3회 | 임시회

2016. 10. 11. ~ 10. 13. (3일간)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10월 11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상육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호계 호수지구 사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라는 주제로 발언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희 부의장은 ‘울산 북구청은 지진과 태풍·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윤치용 운영위원장은 ‘지진 및 핵시설·노후화학공단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은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와 안전한 복구 건설을 위한 건의’ 라는 주제로 발언하였다.

한편 정복금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12일 북구 관내 태풍 피해현장의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북구의회 의원들은 태풍 ‘차바’로 인해 마을 진입도로 유실, 교량 파손, 토사 유출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동 대안마을과 박상진 호수공원 일원 등을 돌며 피해 현황 및 복구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4회 | 제2차 정례회 2016. 11. 21.~12. 22. (32일간)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21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12월 22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정복금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진과 태풍은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견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요구가 반영된 근본적 대책과 항구적 복구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정책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17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와 변화하는 복구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제162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무의 위탁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폐지된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각각 제정하여 운용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함으로써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대집행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복구 문화예술 융성에 적극 실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한 법령 미근거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 불일치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시설물 운영 재정 적자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예우 지원 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으로 제한하며,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기준을 하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제163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6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중산행복섬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이수선, 이상육, 백현조 의원]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안승찬 의원]

※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 임기를 전임 위원에 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 하고 위원 간 상이한 임기로 인한 혼란과 조례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안승찬 의원]
  - ※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혼란이 없도록 하며,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에 추천 인원을 명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 추천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어업권에 대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지정토록 수산업법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코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이수선 의원]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6. 7. 7.)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제164회 |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원전주변지역의 단층대에 대해 정밀조사와 함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실시할 것을 촉구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욱 의원]
  -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호)에 의거하여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안승찬 의원]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조정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횡수 제한 규정 등을 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이수선 의원]
  - ※ 울산광역시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우미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 부결 [이수선 의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의 날 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를 함양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구민 참여의식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대상 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대상을 제정함에 있어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복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복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일자리지원센터를 재위탁할 시에는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강동 산하동에 154kV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인근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과 울산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이전 건립할 것을 촉구함.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목적**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6. 11. 22. ~ 11. 30.(9일간)

## | 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8	22	66
공 통 사 항	4	2	2
기획홍보실	5	1	4
행정지원국	27	10	17
복지경제국	21	3	18
건설도시국	26	6	20
보 건 소	3	0	3
동	1	0	1
의회사무과	1	0	1



# 행정사무감사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강진희 부의장



윤치용 운영위원장

## 주요 질의사항 :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검토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장애인,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 자립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지원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조치사항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주택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NH) 울산권주거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용 주택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심층 검토하겠음.

## 주요 질의사항 :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교육의 확대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임에도 아직까지 많이 못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조치사항

- 향후 관내 학교,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학기 중에 교육을 추진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현재 '바리스타 드림' 프로그램 운영중)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여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주요 질의사항 :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개선 검토

일반 경로당의 시설개선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경우 시설 개선이 누락되고 있음. 공동주택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조치사항

- 2017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경로당 개보수 신청 시 가점 부여 운영하고 있음.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주요 질의사항 : 등산로 주변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주요 등산로 주변에 각종 사업을 실시한 후,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고 산림이 훼손 되어 비가 오면 절개지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시설물들(운동기구, 팔각정자 등)을 설치만 해놓고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필요함.

## 조치사항

- 주요 등산로 일원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하여 진창구간 정비(0.5km),목재횡스 교체(10경간), 편의시설(정자 2, 벤치 6) 도색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주1회 이상)을 실시하여 등산로변 시설물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안승찬 의원

## 주요 질의사항 :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계획 수립

기박산성, 관문성, 유포석보, 달천철장 등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보존의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음. 형식적인 문화재의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문화 콘텐츠화 시키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조치사항

- 관문성 종합정비는 울산광역시에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2017년도 시비 보조금은 미확보(7억원) 되었으나,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 달천철장 정비는 38억 예산으로 금년도 정비 사업을 완료 하겠음.

## 주요 질의사항 : 주민 참여형 사업의 지속 추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조치사항

- 새로운 주민주체들이 초기단계 주민모임을 형성하여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마을 만들기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 수행 단체들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존 사업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주요 질의사항 : 자율방재단 활성화

각종 재해 재난이 발생시 가장 우선적으로 연락되고 활동하여야 하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임무 등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자율방재단의 교육 등을 통해 역할이나 임무 등을 숙지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조치사항

- 지역자율방재단 대상으로 재난역량강화 교육 및 방사능방재 교육 등 매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자율방재단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추가교육을 통해 임무가 숙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각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2016.12.15.개정)

## 주요 질의사항 : 지역축제예산의 적절한 운영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색있는 축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우리 구 전체의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축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조치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에 의거 2017년부터 행사·축제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 평가와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적절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하에 적극 이행하겠음.



이상육 의원



이수선 의원



백현조 의원

### 주요 질의사항 : 교육경비 지원 사업내용의 다양화 노력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단순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조치사항

- 단순 교재교구 구입의 경우 대부분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사업신청 시 유치원, 각급 학교에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 사업계획 수립토록 지도하겠으며, 심의 시 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임.

### 주요 질의사항 :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북구는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임. 북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시에 건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 조치사항

-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해 들어서는 (가칭)송정역을 중심으로 인근 송정택지개발지구와 함께 이용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향후 울산 북부권의 교통 중심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 (가칭)송정역 역세권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북구의 신도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울산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음.

### 주요 질의사항 : 유해성 물질 검출 체육 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물 중 유해성 물질이 포함된 체육시설물이 있으며, 이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빠른 시일 내 교체를 완료해 주기 바람.

#### 조치사항

- 관내 운동장 3곳(농소, 달천, 효문운동장) 및 명촌 다목적구장의 유해성 물질 초과검출에 따라,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2017년 2월 중에 실시설계를 거쳐 4월에 교체공사 착공할 예정임. (※ 2017. 8월 준공예정)

### 주요 질의사항 :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홍보 철저

건축용 자재 석면 슬레이트가 교체되지 않고 지역에 많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대한 많은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조치사항

- 매년 초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실시에 따른 홍보를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마을ئم프 등 연중홍보 접수하고 있으며,
- '18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희망자 신청 안내 실시(2017년 3월까지)

## 현 | 장 | 속 | 으 | 로

# 북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및 자원봉사활동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9월 12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푸른희망 지역아동센터와 엘림 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생필품 및 생활용품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북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자원봉사활동도 펼친 북구의회 의원들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 북구의회 태풍 피해 복구현장 추진상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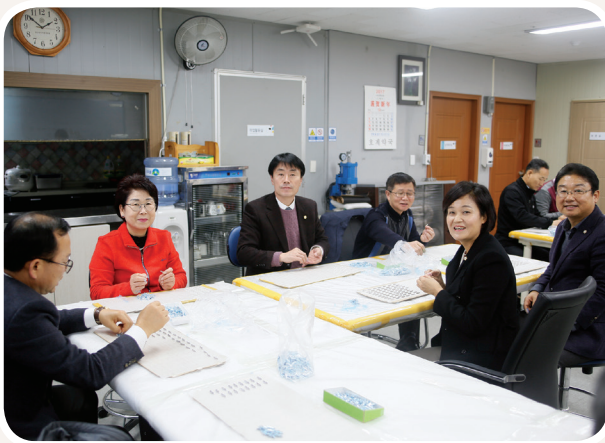
정복금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0월 12일 북구 관내 태풍 피해현장의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북구의회 의원들은 태풍 ‘차바’로 인해 마을 진입도로 유실, 교량 파손, 토사 유출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동 대안마을과 박상진 호수공원 일원 등을 돌며 피해 현황 및 복구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현장에서 만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간 관내 전 지역의 피해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복구 현장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11일에도 복구청 관계 담당자와 함께한 피해 상황 및 복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 복구 지원방안 등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현 | 장 | 속 | 으 | 로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봉사 활동



북구의회(의장 정복금)는 12월 21일 오후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체험 봉사활동에는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작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자동차 부품 관련 작업 등의 일을 체험했다.

한편 정복금 의장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결·의·안

- >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 > 의 결 일 :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1.)
- > 결의요지 : 월성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 월성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 ■ 제안이유

- ▶ 가.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은 월성원전, 고리원전, 경주방폐장 등 원전 관련 위험 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였음.
- ▶ 나.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인근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계에는 이러한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를 배제하였으며,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안전성 평가 미비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음.
- ▶ 다. 부산·울산·경남을 원전밀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원전주변지역의 단층대에 대해 정밀조사와 함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실시할 것을 촉구함.

#### ■ 주문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경주방폐장 등 위험천만한 원전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논란이 되었던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원전 산업계는 양산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었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이 위치한 경주, 울산, 부산 지역 육지에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140km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 등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8개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계에는 이와 같은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를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1643년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규모 7~7.3의 지진이 기록된 바 있으며, 한반도 최대지진 규모는 7.45라고 평가한 논문도 있다. 원전 내진설계기준으로 적용된 규모 6.5~7.0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활성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을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은 즉각 철회하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주변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



# 결·의·안

>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 의 결 일 :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22.)  
 > 결의요지 :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 ■ 제안이유

- ▶ 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강동 산하동에 154kV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인근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과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 나.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의하면, 학교주변 인근 300미터 이내에는 고압전선로 및 송전탑, 그 밖의 유사 위험 시설(변전소, 주유소 등)의 위험요소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나.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책위는 전자파, 첩탑 및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문제와 운동능력 저하를 우려하여 변전소 위치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이전할 것과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첩탑 8, 9호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갈등이 상호 대치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이전 건립할 것을 촉구함.

### ■ 주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강동 산하동에 154kV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과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공동주택에 너무 근접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 건립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 산하지구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이 입주 시작하였고, 현재 인구 1만명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가 정자동에서 이전하여 개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산하변전소가 산하지구 등 강동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2013년 9월 10일 기공식을 하였고, 2014년 개교하여, 임시로 울산동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 2015년 2월 지금의 강동 산하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 운동하는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문 육성하는 공립체육학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울산북구청에서 조성한 산음수변공원은 산하변전소 건립예정지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하변전소는 2011년 산하지구 개발단지 내에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2013년 12월 지금의 산하동 산835번지 일원으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산하변전소와 주요 시설과의 거리는 개략적으로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와는 135m, 산하 블루시티 2차 푸르지오 단지와는 450m, 강동중학교와는 870m, 강동초등학교와는 1,000m, 강동블루마시티 1차 푸르지오와는 1,700m 거리입니다.

그리고 송전첩탑과의 이격거리는 8호기의 경우, 스포츠중고 남자기숙사와는 292m, 원반연습장은 195m, 주령마을회관까지는 741m, 주령마을 양계장까지는 288m라고 합니다. 9호기에서는 스포츠중고등학교 남자기숙사와는 254m, 원반경기장 174m, 육상트랙 134m이고 산음마을은 355m, 푸르지오 2단지 519m 거리입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의하면, 학교주변 인근 300미터 이내에는 고압전선로 및 송전탑, 그 밖의 유사 위험 시설(변전소, 주유소 등)의 위험요소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울산교육청은 변전소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평가기준에 맞게 조사하고 평가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조사하고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책위는 전자파, 첩탑 및 송전선로로 인해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운동능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변전소 위치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첩탑 8, 9호기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학부모 요청시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증명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현행 법령상 지중화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전소 위치 변경에 대하여 강동권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변전소 건설은 불가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변전소 건설이 승인된 지역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학부모와 주민의 갈등은 한전의 불가 입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에서 제시하는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증명 실험은 주민들과 학부모들로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며, 그 실험이 신뢰할 만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수준이므로 여러 논문과 주장으로 볼 때 여전히 찬반에 대한 입장이 상호 대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북구의회는 주민과 학부모 민원을 모른 채 할 수 없고,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고 촉구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때 산하지구 아파트와 학교를 이전할 수 없다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이전 또는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는 방안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실적 환경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산하 변전소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이전하여 건립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철탑 8, 9호기를 지중화 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야 한다.**



## 구·정·질·문

-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 질문일시 : 제162회 임시회 (2016. 8. 25.)
- > 질문요지 : 북구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 북구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우리 구는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전 북구생활체육회 임원 등 다양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체육회 임원 및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일부 임원 중에 체육관련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나 북구 체육회 규정에도 선수출신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생활체육의 경우 체육전문가만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음. 체육전문가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사회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단합하고 화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북구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전문성 부분이나 부족한 점은 점차적으로 준비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 미선임 사유와 이사 추가선임과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감사는 이사회 구성 후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임원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 18일자로 내려오에 따라 지난주에 감사 인선작업을 착수하였음. 다양한 직업군과 체육경력이 있는 이사의 추가선임에 대하여는, 이사 정수가 규정상 35인

이고 현재는 회장, 부회장 5명, 이사 20명, 사무국장 1명으로 총 27명이기 때문에 여유정원 8명이 남아 있음. 여유정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체육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체육회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우리지역의 체육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각종 위원회 미설치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북구 체육회 규정 제17조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 18일자로 내려오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체육회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심의와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임.

▶ **구청장기 대회와 체육회장기 대회 통합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통합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 4개 구·군 중 중구와 울주군은 체육회장기 대회가 없으며 우리 구와 남구의 경우 구청장기 대회와 체육회장기 대회를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음.

대회 통합은 체육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뿐만 아니라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연합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표창의 경우에도 남구와 울주군의 경우에는 체육회장 표창이 없으나 중구와 동구, 우리 구의 경우는 구청장 표창과 체육회장 표창을 동시에 수여하고 있음.

▶ **구청장이 회장인 경우 부족해진 출연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민간인이 회장이었던 기존 생활체육회의 경우 해산직전 회장 포함하여 이사가 총 43명으로 연간 이사 출연금이 회장 5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이사가 30만원으로 연간 2천 8백 십만원이 생활체육회의 출연금으로 적립되었음. 그러나, 체육회로 통합되면서 회장 1천만원, 부회장 3백만원, 이사 50만원으로 출연금을 기존 생활체육회보다 상향하였기 때문에 현재 35명의 이사정원을 다 채울 경우 출연금은 생활체육회 때보다 290만원이 증액된 3천 백만원이 적립됨. 물론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이 회장을 한다면 1천만원의 출연금이 더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립초기인 만큼 체육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종목별, 연합회별 단합을 위해서는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민간인보다는 구청장이 초대회장을 맡는 것이 초기 체육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1차 추경에 편성한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서 기존 생활체육회 업무정리와 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운영 등 관리업무가 증가하였고 체육회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기에 5월부터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예산승인 전까지는 체육회 내 자체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예산이 승인된 후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 **1차 추경에 편성한 상근인력 채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회장을 대신하여 각종 종목별 연합회와 생활체육인들의 유대 강화 등 대외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체육회 업무를 맡을 책임감 있는 직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근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상근부회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절차와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이사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 18일자로 내려오에 따라, 시 체육회의 승인 전에 상근 부회장 채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채용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상근부회장은 체육회 운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할 계획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고 충분한 내부토론을 거쳐 인선하겠음.



# 구.정.질.문

- >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 > 질문일시 : 제162회 임시회 (2016. 9. 5.)
- > 질문요지 :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 **도시의 빠른 성장으로 타 지역보다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우려가 있는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특히,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빠르게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우리 구 전체 면적은 159.24 제곱킬로미터이며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졌거나 개발이 어려운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면적이 20.66 제곱킬로미터로 전체면적의 13% 정도며,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의 시가화 가능 면적은 구 전체 시가화 가능 면적인 20.66 제곱킬로미터 중 7.97 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39% 에 이르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개발 행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 중 천곡동의 경우에는 2016

년 6월까지의 개발행위의 건수가 2015년 전체 개발행위 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우리 구에서는 개발행위가 매년 증가하여 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균형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성장관리방안’ 이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말하며, 대상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해당됨. 우리 구는 2016년 1회 추경에 4천만원의 성장관리방안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울산발전연구원과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성장관리방안 구역의 최적 대상지를 선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 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예정임. 아울러 성장관리방안 구역 검토대상 밖의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구역 설정 등을 검토하여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구·정·질·문

- > 질문의원 : 이상욱 의원
- > 질문일시 : 제163회 임시회 (2016. 10. 11.)
- > 질문요지 : 호계호수지구 사업승인 및 건축인·허가와 관련하여

## 호계 호수지구 사업승인 및 건축인·허가와 관련하여

### ▶ 호수지구 내 일반건축 최초 인·허가 시기 및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내 최초 일반건축 허가는, 2012년 5월 29일자로 21블럭 10로트 상에 다가구 용도로 건축허가 되었음. 통상 진행 중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라도 건축허가 신청시 해당 대지가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건축주가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시까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하고 있음. 최초 건축허가 신청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건축용도에 적합하였고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이 2007년 9월 8일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개별 건축공사를 승낙하는 대지위치 및 소유자를 결정한 환지계획도와 환지에정지 지정설명서를 2011년 11월 21일 발급하여 건축허가 되었음.

### ▶ 호수지구 내 진입로, 교량 등 부대시설 사업승인 조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시행인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지구 진입로인 대로 3-59호선 및 중로 1-76호선에 호계천을 횡단하는 교량 반폭과 구역내 도로 29개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며, 부대시설로는 어린이공원 3개소와 녹지 1개소를 조성하고 노외주차장 1개소를 확보하여야 함.

### ▶ 호수지구 준공조건 중 미이행 사항에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조건 중 주 진입로인 대로 3-59호선의 일부 구간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양수자인 1,2차 공동주택사업 승인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음. 중로 1-76호선상의 호계천 횡단교량 설치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설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전 완료하여야 함. 또한, 한양수자인 2차 공동주택 진입로 및 주변도로 6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양수자인 2차 공동주택 승인조건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동의를 있어야 가능한 사항임. 그리고 부대시설 중에는 어린이공원 3개소와 노외주차장 1개소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설은 누락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는 등 호수지구 조성사업 완료 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있음.

### ▶ 호수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호수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은 한양수자인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2개소로 한양수자인 1차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6년 9월 9일 공사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시행하였고 2차 아파트는 2017년 10월 공사완료 예정임. 문제가 되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지 주변 도로개설, 도로부지 기부채납, 호수지구의 배수설비완료확인서 등으로써, 이 조건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함. 그러나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전 시공사가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소송 중에 있고, 체비지를 사실상 현 주택조합에 전부 매각하여 사업비가 없어 사업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 체비지를 취득한 현 주택조합의 대행사실 소유자가 사실상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전 시공사의 소유자이므로 주택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공동주택 입주자 재산권 행사 제약과 불이익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대신에 관련 법령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동별 사용검사”는 공사 완료된 일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용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아울러 “임시사용 승인”은 준공을 의미하는 사용검사가 아니며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대지 모두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 ▶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한양수자인 1차 아파트는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의 갈등으로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동별사용검사” 처리되어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 바 있음.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와 관련 주택사업 승인 조건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주택건설사업 공사중지 명령하였고,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이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지만 승인조건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음.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주변도로도 개설해야 함. 이와 같이 한양수자인 1-2차 사업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에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문제점은 두 조합의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점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음.



# 구·정·질·문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질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15.)  
 > 질문요지 :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에 대하여

##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에 대하여

### ▶ 친환경급식센터의 민관협치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및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을 포함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주민, 농가, 행정, 관련 단체 및 기관간의 상호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금까지 민관협치의 정신에 따라 시민단체, 농업인 단체, 영양사가 참여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민관협의를 통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임. 그리고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모니터링단과의 간담회, 친환경작목반 및 학교 영양사 선생님과의 간담회,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친환경급식센터 등록물품 품목수 감소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등록품목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현지 실사 한 후 일선 영양사와 조리사, 한살림, 아이쿱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와 규칙에 따라 친환경급식의 취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음. 2016년도 등록물품 품목수가 감소한 사유는 등록된 물품 중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식재료와 친환경 원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목을 취소함에 따라 품목이 줄어 들었으며 현재 등록물품 품목의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원·부재료를 사용하는 가공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고 있음.

### ▶ 친환경 작목반 농가수, 생산량 및 납품량 감소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15년 19가구이던 친환경작목반의 농가수가 2016년 현재는 17가구로 감소하였고, 친환경급식자재의 생산량과 납품량도 감소하였음. 이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움,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등과 특히, 올해 경우는 폭염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주된 감소이유라 생각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예측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여 학교에서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공급량을 연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해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록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임.

### ▶ 전산프로그램 교체사유 및 운영방식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재 사용중인 '도농' 프로그램은 행정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직접 수발주를 입력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별도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센터로 보내면 센터 전산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그 발주내역을 출력해서 일일이 대조작업을 하고 다시 업로드해서 수발주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등 운영상 불편한 점이 많음. 프로그램 운영경비도 월 18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안에도 취약한 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교체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중인 이 에이 티 학교급식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나이스 프로그램과 행정의 새울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온라인 처리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용료도 월 50만원 정도로 저렴하여 예산 절감효과도 있음.

그리고 전국 1만 2천여 학교 중 9천 7백여개 학교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호환성과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난 12월 12일 일선 학교 영양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예산, 보안, 행정망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입을 결정할 계획임. 그리고 프로그램이 변경되더라도 센터에 등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친환경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후 친환경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검수검품 업무 담당자의 계약직 전환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검수·검품은 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는 검수·검품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음. 검수·검품 및 계약재배의 성공과 친환경작목반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진단을 통해 검토하겠음.

### ▶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함. 앞으로도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을 포함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농가, 행정, 관련 단체 및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음.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62회 임시회(2016. 8. 25.)

## 발언요지 ▶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울산 북구청의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대의정치로서, 지방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만큼 주민의 요구와 이해에 맞는 행정과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울산 북구청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지역 골목경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단체장의 소신 있는 행정을 공권력과 법의 잣대로 유린하는 것이며, 주민의 요구와 뜻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처음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는 그 결과를 떠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집안민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나름의 정책 실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재로 남을 것입니다. 단체장은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윤종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입

점을 반대한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지역골목상권을 위한 지방단체장의 판단이고 상인과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장의 판단과 권한을 소송으로, 법으로 걸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지방 단체장은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법 때문에 들어 주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광역의원을 거쳐 단체장을 하고 계시는 박천동 북구청장은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그동안 해오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순간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단체장으로 이번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구정 업무를 소신 있게 해 가시는 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충성 어린 충고를 사심 없이 받아들이신다면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63회 임시회(2016. 10. 11.)

## 발언요지 ▶ 울산 북구청은 지진과 태풍·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유례없는 대형 재난을 연거푸 겪으면서 지금 울산 북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자연재해, 또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재난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발생 시에는 모두가 우왕좌왕했지만, 북구청에서 지진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주민행동요령 전단지 배포하기로 한 것은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북구의회에서도 강북교육청 담당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필요시 옥외음수대와 조명을 켜게 하고, 화장실 이용을 제한적으로 유도 하에 개방하기로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후속 작업으로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안된 농소2·3동, 효문동주민센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내 공동주택 내진 설계 현황을 빠른 시일 내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학교에 대해서는 피해현황과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재난이 일어난 우리 북구지역에서 발 빠르게 판단하고 대

응할 수 있는 문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진과 태풍보다 더 공포스러운 핵발전소 사고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질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반영도 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은 울산 북구 주민들의 생명, 안전의 문제입니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합니다. 혹시나 건물이나 흩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합니다. 인구 20여만명이 살고 30km 내에 대도시는 없으며 산지로 둘러싸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6기가 단 한차례의 지진으로 전국토를 재앙의 땅으로 몰고 갔습니다. 340만명이 살고 있고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면서 얇은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진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12기는 단 한차례의 지진에도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혹한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63회 임시회(2016. 10. 11.)

## 발언요지 ▶ 지진 및 핵시설·노후화학공단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지진에 이은 태풍 피해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자연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던 울산이 하루 아침에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태풍의 수해를 입은 아픔보다 울산시와 정부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인 대책 하나 내놓지 않는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불신으로 수해를 당하신 농민들과 상인,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반경 30km에 위치한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등 수백만명에게 재앙이 닥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6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민 여론조사 결과, 120만 울산시민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인 80% 이상의 시민들은 6.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2차 재해인 핵발전소 사고(49.9%)와 화학공단 사고(21.7%)를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울산시장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50년 된 노후 화학공단과 울산도심의 거리는 정작 5km에 불과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최소한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울산시민들은 누구나 대피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아울러 재난대응 및 대피 매뉴얼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지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양산, 울산, 경주지역이 활성화중이라는 사실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지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 가동중단과 추가적으로 건설 중에 있는 원전시설에 대하여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울산시와 울산시민의 청원을 중앙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0년 된 화학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점진적인 내진설비 시설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이행 강제와 촉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63회 임시회(2016. 10. 13.)

## 발언요지 ▶ 태풍‘차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사업과 안전한 복구 건설을 위해 건의 드립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크고 많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천재지변과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가 겹친 피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해 그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먼저, 주민들은 <하수구 정비와 설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처리 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수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우선 검토하여 복구를 하면서 정비를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 주민들은 <호계매곡 지역 등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과 오토밸리로 공사 등 도로 공사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산에서 벌목 작업 후 후속 처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벌목 등을 방치함으로 생긴 피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 공사 전에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발생한 것을 증거로 이야기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의 경우처럼 D등급을 받고도 공사를 지연하는 가운데 붕괴

사고가 생겨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수지 붕괴는 큰 피해와 사고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수지에 대한 안전은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보수, 정비 공사를 시급하게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천강과 지천 등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정비 공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복구 전체를 두고 하수 처리에 대한 진단속에서 각각의 하천과 교량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비를 해야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 복구 사업이 민간이 협력하는 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지원이 시급한 세대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에서 총괄적 복구사업 계획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1. 21.)

## 발언요지 ▶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선언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1. 국민의 이야기,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최순실의 말에 따라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2. 세월호 304명의 아이들과 국민이 죽어 가던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할 그 시간에 도대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3.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4.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 800억원을 거둬들이고, 재벌들의 노동탄압과 임금착취 등 불법적 행동을 봐주고, 노동악법을 개정하여 재벌을 도와주는 등 오로지 박근혜와 최순실을 위한 경제를 해 오면서 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인과 도시 빈민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5. “통일대박”을 이야기 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극단적 긴장관계로, 전장위험으로 몰고 간 이유가 최순실이 2년 안에 북한은 붕괴한다고 이야기한 때문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자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6. “13명의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는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국민이 뽑은 5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무소속이 되어버린 지방의원들과 당원, 지지한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에 대하여 회복하고 위로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순실과 비선의 범죄와 국민우롱, 국정 농단의 중심에 선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면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도 열지 못할 뿐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에게 행복한 가정,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해야 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1. 21.)

## 발언요지 ▶ 최순실 국정농단, 비선실세 헌정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4일 jbc 뉴스 보도로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정권의 실체에 대해 국민 모두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급기야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는 대학생들과 나이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앞에는 100만 촛불의 성난 민심들이 모여 거대한 민중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생애같은 아이들을 국민 모두가 10시간이 넘는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망망대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던 절망 속에서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도록 했던 처참한 기억에서부터, 보육예산은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 재정을 위기에 빠뜨렸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학문의 자유를 질식시켜왔던 국정운영에서 실망을 넘은 힘없는 국민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포와 방관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였던 성난 민심의 파도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박 대통령께서는 1차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연

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필요 시 자신도 검찰 수사, 나아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였고, 지난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11월 16일까지의 조사 시한에 불응하고, 결국 조사연기를 요청하면서 대통령 출석조사는 헌법상 특권으로 회피하였고, 수사 받겠다던 본인의 말을 법률대리인의 입을 빌어 번복하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그동안 법과 원칙을 외쳐왔던 대통령을 향한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어 정녕 현 시국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기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0만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에 부응하는 대신, 2선 후퇴도 하야도 거부하면서 국민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진만이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2. 8.)

## 발언요지 ▶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마라!

지난 11월 28일 농수산물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이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의 행정의 현황을 살피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자칫 당연한 일이며, 이는 주민들이 저에게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를 들어가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담당업무 공무원이 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피켓의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따라 행한 것이니, 제대로 알고 질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례나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한 것 없습니다. 왜 급식센터에 들어오는 품목이 줄었는지, 친환경농가가 줄고 생산량이 왜 줄었는지, 왜 전산프로그램을 바꾸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령 억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공식

적인 결재라인을 통해 의원에게 해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면 될 일이지 막무가내로 피켓시위를 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게 과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대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물과 행감이 있었던 다음 날은 아침부터 부의장실 앞에서 항의성 글을 부착하고 연좌농성을 하였습니다. 마침 방청했던 기자가 있어서 연좌농성하는 것이 버젓이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굳이 저의 명예훼손까지 들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의기관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지적했다고,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자신의 업무를 방어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킨 공무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이자 북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구청장님도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북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과 더불어 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수선 의원  
>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15.)

## 발언요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1일 개최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본 의원의 발의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교류협력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협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북구의회의 심의 결과, 저를 포함해서 이상욱, 백현조 의원이 찬성을 하였고 4명의 의원이 기권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원은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고유의 임무이자 권한입니다만,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는 길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하려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2. 22.)

## 발언요지 ▶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민간 거버넌스 정신에 맞게 운영하라!

앞으로의 시대는 민간 협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추진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센터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급식운동을 해 온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농수산물에 친환경급식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간 거버넌스를 훌륭히 해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급식지원센터는 농사를 짓는 작목반을 설득하여 친환경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 한영의 작목반이 20여명의 작목반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모양이 못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을 다니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 친환경 및 생태친화적인 식재료로 만든 품목들을 늘려가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는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말 경 민간의 센터장이 계약만으로 그만둔 이후로 공무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센터장은 민간 거버넌

스의 상징성이었는데,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오면서 민간 거버넌스의 정신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 같이 안타까웠습니다. 농수산물과는 시행규칙마저 변경하여 이제 공무원만 센터장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도 그간의 급식시민단체를 배제하여 큰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은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다보니 급식센터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영양교사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작목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센터 전산담당자와 학교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센터 검사검품 담당자와 친환경작목반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안전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 급식센터 품목을 늘리는 것도 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빨리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2016 을지연습 실제훈련 (2016. 8. 15.)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 방문 (2016. 9. 3.)



어르신 행복식당 봉사활동 (2016. 9. 12.)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2016. 9. 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2016. 9. 22.)



지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2016. 9. 22.)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북구 사회복지시설 기관 한마음 대회 (2016. 9. 24.)



제3회 울산 북구 책잔치 (2016. 9. 24.)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2016. 9. 26.)



태평천비주요피해지역 현장방문 (2016. 10. 12.)



2016 하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2016. 10. 28.)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람회 견학 (2016. 10. 28.)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농외동 경호잔치 (2016. 10. 30.)



제13회 북구청장배 축구대회 (2016. 10. 30.)



2016 북구 보훈가족 합동 위로연 (2016. 11. 1.)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 (2016. 11. 1.)



제17회 북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2016. 11. 1.)



의원 청탁금지법 교육 (2016. 11. 7.)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집행부 현안업무 및 2017 당초예산 설명회 (2016. 11. 7.)



북구문화원 영선 준공식 (2016. 11. 28.)



제국대학 제9기 졸업식 (2016. 11. 29.)



베트남 롱수언시 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2016. 11. 30.)



2016 자원봉사자 대회 (2016. 12. 2.)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6. 12. 5.)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2016학년도 노인대학 졸업식 (2016. 12. 15.)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2016. 12. 16.)



미포산업로 개설공사 준공식 (2016. 12. 19.)



414분기 의원 자원봉사 활동 (2016. 12. 21.)



2016년 종무식 (2016. 12. 22.)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2016. 12. 23.)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 정복금 의장



경상일보 북구의회 의장 인터뷰 (2016. 7. 20.)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주년 기념 사진전 (2016. 7. 20.)



강동 선다리 축제 (2016. 9. 24.)



송정, 화봉동 경로잔치 (2016. 10. 2.)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화합 한마당 (2016. 10. 15.)

“아이들이 행복한 최선을”



제16대 후반기 시군구의회 의장 간담회 (2016. 10. 17.)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 (2016.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2016. 11. 9.)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후원자의 밤 (2016. 12. 2.)



농소농협 다문화 여성지원 팥죽 나눔행사 (2016. 12. 20.)

북구를 위해  
다하겠습니다.”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 강진희 부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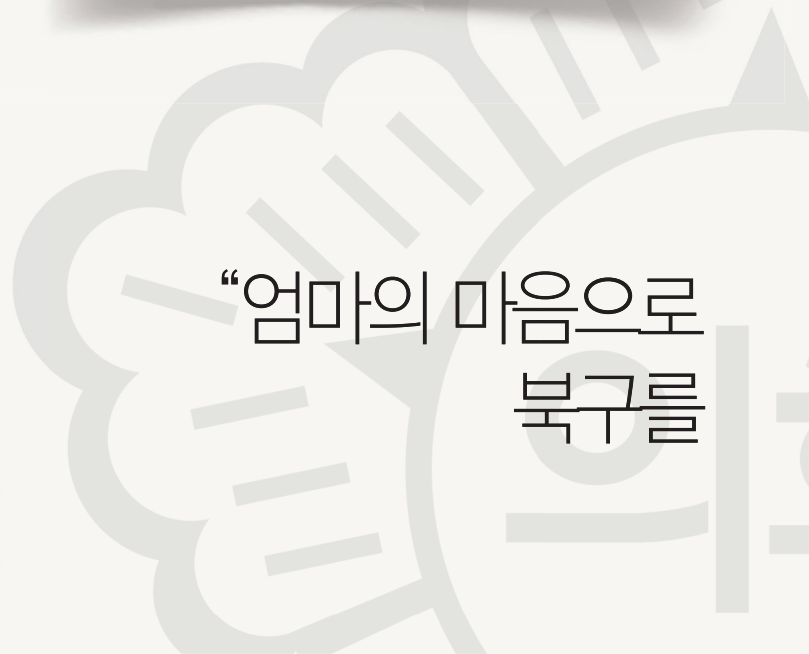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주년 기념 사진전 (2016. 7. 20.)



TBN 울산교통방송 특별출연 (2016. 7. 23.)



2016 울산 서머 페스티벌 (2016. 7. 27.)



“엄마의 마음으로  
북구를



양정청소전방지회소 이전 개소식 (2016. 8. 18.)



어르신 행복식당 봉사활동 (2016. 9. 12.)



호문동 경로잔치 (2016. 11. 15.)



2016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2016. 12. 2.)

안전한  
만들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6. 12. 5.)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2016. 12. 7.)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봉사활동 (2016. 12. 21.)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 윤치용 운영위원장



2016 특계터 콘서트 (2016. 7. 15.)



제비구회 태연재활원 사랑의 바다체험 (2016. 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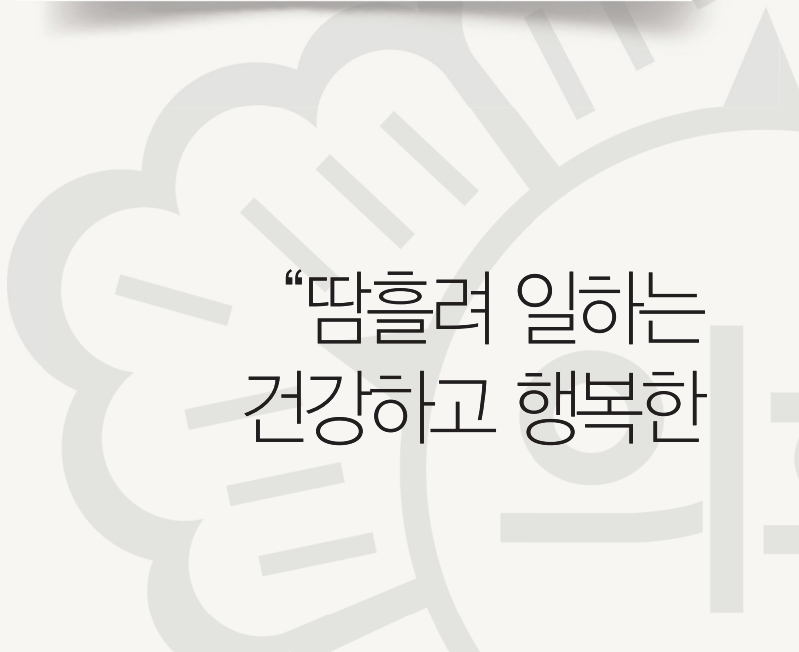
백상진진 의사 추모제 (2016. 8. 15.)



사회복지시설 기관 한마음 대회 (2016. 9. 24.)



주요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 (2016. 10. 12.)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전향 (2016. 10. 28.)



지방행부 현안업무 및 2017 당초예산 설명회 (2016. 11. 7.)

사람들이 존중받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북구청 국화 전시회 (2016. 11. 28.)



현대제철 김장 나누기 행사 (2016. 12. 7.)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봉사활동 (2016. 12. 21.)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 안승찬 의원



당사자연산잔죽관장 증축 개장식 (2016. 7. 4.)



북구 어린이재활연합회 부모교육 (2016. 7. 5.)



농소새마을금고 제20기 주부가요교실 졸업식 (2016. 7. 21.)

“주민과 함께  
숨쉬는 북구로



지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2016. 9. 22.)



강동 섬다리 축제 (2016. 9. 24.)



송정, 화봉동 경로잔치 (2016. 10. 2.)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2016. 10. 28.)

자연이 살아  
가꾸겠습니다.”



2016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2016. 12. 2.)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6. 12. 5.)



북구체육회 유공자 시상식 (2016. 12. 28.)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 이상욱 의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주민설명회 (2016. 8. 31.)



2016 지역자활방재단 방상능 방재교육 (2016.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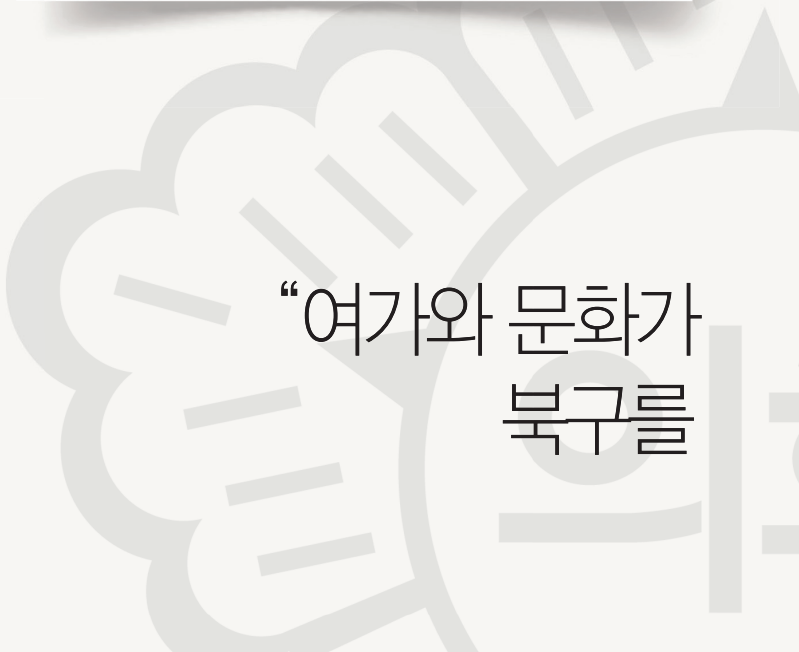
어르신 행복식당 봉사활동 (2016. 9. 12.)



지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2016. 9. 22.)



송정, 화봉동 경로잔치 (2016. 10. 2.)



“여가와 문화가  
복구를



주요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 (2016. 10. 12.)



농외동 경로잔치 (2016. 10. 30.)

풍성한  
만들겠습니다.”



2016 북구 보훈가족 합동 위로연 (2016. 11. 1.)



집행부 현안업무 및 2017 당초예산 설명회 (2016. 11. 7.)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6. 12. 5.)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 이수선 의원



강동119지역대 개청식 (2016. 7. 28.)



북구 주민 토지보상 관련 민원상담 (2016.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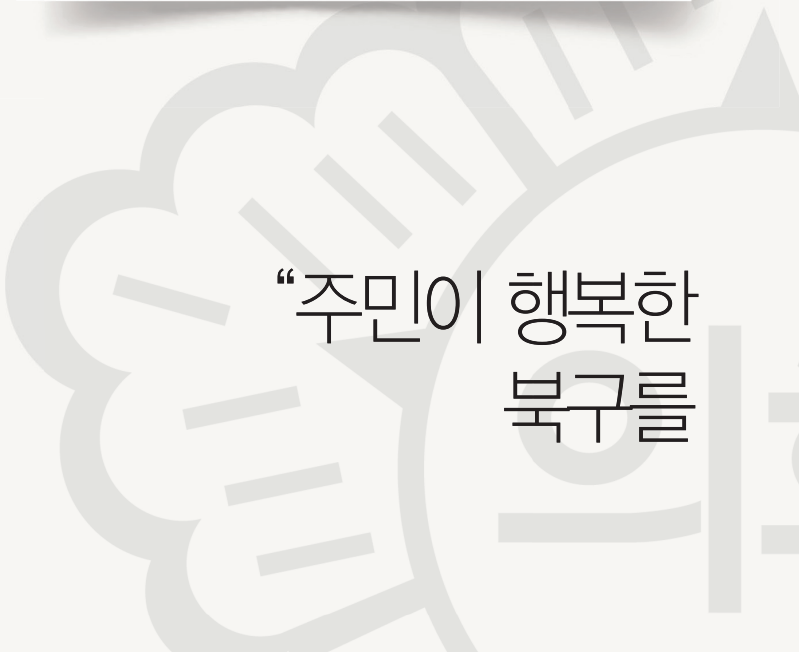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주민설명회 (2016. 8. 31.)



어르신 행복식당 봉사활동 (2016. 9. 12.)



강동 선다리 축제 (2016. 9. 24.)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송정, 화봉동 경로잔치 (2016. 10. 2.)



지방행부 현안업무 및 2017 당초예산 설명회 (2016. 11. 7.)



2016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2016. 12. 2.)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6. 12. 5.)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봉사활동 (2016. 12. 21.)

사람이 살기좋은  
만들겠습니다.”



## 2016년 하반기 포토의정 | 백현조 의원



태극기 달기 운동 (2016. 8. 11.)



K리그 북구데이 행사 (2016. 8. 27.)



어르신 행복식당 봉사활동 (2016. 9. 12.)



시민생활체육대학측진 북구 선수단 격려 (2016. 9. 24.)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화합 한마당 (2016. 10. 15.)

“건강하고 활기찬  
열심히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2016. 10. 28.)



농외동 경로잔치 (2016. 10. 30.)

복구건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33대학 제9기 졸업식 (2016. 11. 29.)



베트남 흥수엔시 대표단 복구의회 방문 (2016. 11. 30.)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6. 12. 5.)

##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10:00 ~ 17:00 (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5층)에서 접수  
 전화: 241-8982 팩스: 241-8989

비례대표	효문·양정·염포동	농소2·농소3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의 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사무실 : 241-8900 010-3446-2002	부의장실 : 241-8910 010-8610-4748	사무실 : 241-8930 010-2299-7321	사무실 : 214-8920 010-6587-1287	사무실 : 241-8960 010-5535-2362	의장실 : 241-8950 010-2833-1929	사무실 : 241-8940 010-3801-8364

※ 의회 방문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